

심병섭 LX 공간정보 본부장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5일 신입 공간정보본부장에 심병섭 전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전남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팀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등을 역임한 국토정보 플랫폼, 스마트시티 전문가이다. 신규 임명된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의 임기는 상임이사로서 2026년 4월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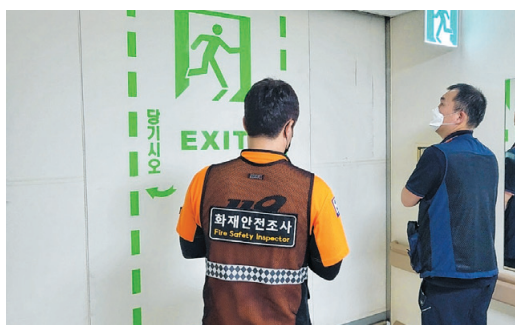
/김대연기자



홍용 전주대 대학원장 학교기금 1000만원 기부

홍용 전주대학교 대학원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전주대학교 60주년 대학 사랑 발전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전달됐다. 홍용 대학원장은 "모교인 전주대학교를 위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전주덕진소방, 의료시설 대상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 나서

전주덕진소방서가 다음달 까지 관내 혈액투석 및 산부인과 의료시설 대상으로 '의료시설 관계인 찾아가는 코칭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의료시설 화재대응사례의 공유와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를 위해 이뤄진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의료시설 등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크니 찾아가는 코칭서비스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건호기자

완주군, 놀토피아 안전점검 실시

조영식 완주부군수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모험 놀이시설인 놀토피아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현장점검에는 유연평 재난안전과장, 실선호 관광체육과장, 사회재난팀장, 관광정책팀장, 건축과 소방·전기 분야별 전문가, 민간예찰단 등 15여 명이 함께했다. 조영식 부군수는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설물 관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임연선기자

공공형·농가형 79명 근로계약 체결 재입국자 30%... 농작업 숙련도 높아

진안군은 25일 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 체결국인 필리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과 농가형 37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올해 초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가 신설됨에 따라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인터뷰 등 과정이 추가되며 지연되던 중 성사돼 일손을 간절히 원하던 농가들에게 단비가 됐다.

이 날 입국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은 진안농협 강당에서 운영주체인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홍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권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진안군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각 조 별로 상전, 미령, 백운, 부귀 등에 마련된 4개의 공동숙소에 배치됐다.



진안군과 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과 농가형 37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일일근로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돼 농업근로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마갈레스스에서 2년째 들어온 재입국자들이 30%를 차지해 지난해

보다 숙련된 농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작업 시작 5일 전 운영관리 농협(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에 신청하고

일당 95,000원(8시간 근로, 점심 근로자 지참)을 입금하면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새벽 제4차로 단체 입국한 필리핀 농가형 계절근로자 37명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모여 근로계약 체결 및 노사관계, 인권침해 등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각 고용농가에 배치됐다. 이번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153명, MOU 체결국(필리핀) 141명으로 총103농가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활동을 거두고, 농산물 생산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진준성 진안군수는 "일손 부족으로 관내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한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진안=양대진기자

전라일보 박민섭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돈벌이로 전락한 공인어학시험... 제94회 한국어능력시험 압표상 사태'를 보도한 전라일보 박민섭 기자가 한국기자협회 제403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어 전라일보 등 총 6편의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지역취재보도문을 수상한 전라일보 박민섭 기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전하고자 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압표상' 공론화 관계기관 새 시스템 도입 이끌어 기자의 열정과 의지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민섭 기자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4회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 압표상 사태의 실태를 최초·심층 보도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이끌어 냈다.



박민섭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 전북본부 취약층에 농산물 550세트 전달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병철 NH전북농협 노조위원장)는 지난 23일과 24일 전주시와 완주군을 찾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썬달리며 2750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550세트(전주시 300세트, 완주군 250세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병철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전주시설공단 - 도로교통공단 안전 교통문화 정착 협력키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과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부(지역본부장 기용걸)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협력 ▲공단 차량 운행의 교통 안전성 향상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운전 인증 획득 협력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협력 등이다. 특히 공단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중인 안전운전 인증 획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운전 인증은 운전원별 운행 안전 진단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개



전주시설공단과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부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선하고 그 성과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진단하고 심의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지원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기자

무주군, 자활상품 순회 장터 운영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2024년 자활상품 시·군 순회 무주군 장터'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장터에서는 무주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도내 24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두부 및 빵튀기, 초코파이 등 총 30여 종이 전시 판매됐다. 무주지역자활센터 권삼일 센터장은 "자활생산품은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의 질이 우수하고, 유통 마진이 없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무주=김현준기자



무주군이 도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2024 자활상품 시·군 순회 장터'를 진행했다. 이날 장터에는 지역 자활기업 제품 30여종이 전시 판매됐다.

전주시, 병무청오거리 인근에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쉼터 조성

전주시는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인 교통안전 쉼터를 중노송동 병무청오거리 인근에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폐가였던 완산구 중노송동 547-10(병무청오거리 인근)에 교통안전 쉼터를 조성,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됨은 물론 오가는 시민들의 쉼터로도 사용된다.

이곳은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16㎡(약5평) 규모에 의자와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시설,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개

방되며 24시간 개방하는 공중화장실도 설치됐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교통안전 쉼터 설치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운전자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홍재희기자



장수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 여성청소년계는 24일 장계초 정문에서 장수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추영곤 교육장, 녹색어머니회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수막과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홍보했다. 김홍훈 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임정규기자

장수계남면 사회보장협 어른신 모시고 봄나들이

장수군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해순, 이하 협의체)는 지난 23일 정서적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춘남 서천군으로 '행복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나들이에 동행한 한 어르신(80세)은 "이번 봄나들이로 봄기운을 흠뻑 느끼고 처음으로 신기한 동·식물을 구경해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하루를 행복하게 보냈다"고 협의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장수=임정규기자